

04

몽골

Mongolia

몽골에서의 2년, 돌아보면 꿈같은 시간!

- › 활동기관 : ETV (몽골)
- › 자문분야 : 산업기술
- › 자문내용 : 다큐멘터리
- › 성 명 : 전 대 길



2013년 10월, 몽골 방송국 ‘울란바타르 몽골국영방송국(이하 ETV)’에 NIPA 자문관으로 파견되면서 설렘보다 걱정이 컸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그사이 2년이 흐르고 어느새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몽골에서 꿈같이 보낸 시간 2년... 사실 30여 년을 PD로 살며 어렵고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누구나 정말 힘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장 도망치고 싶은 곳 한 군데 정도는 있을 터. 내게는 바로 ‘몽골’이 그런 곳이었다. 돌이켜 보면 몽골에서 보낸 2년은 30여 년간 PD를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 온 내게 준 큰 선물이었다. 이제 귀국을 앞두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짧은 글과 사진으로나마 정리해 두고자 이 글을 쓴다.



몽골 중부 아르항가이 지역의 여름풍경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 Marcel Proust(‘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

다시금 여행을 떠나다

평생을 해 왔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잠시 정리하고 2008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집사람과 함께 짧지 않은 여행을 다녀왔다. 봄에는 인도와 네팔을 둘러보았고, 가을에는 터키와 시리아를 거닐었다. 위에서 발견된 암세포 때문에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체력은 바닥이었지만, 그렇다고 오래 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계획했던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찬찬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Marcel Proust의 말대로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새로운 풍경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그때 보았던 시리아 팔미라 유적들이 IS(Islamic State)의 광적인 만행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니 인류 전체에 대한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여행을 통해 앞으로 남은 생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됐다. 그 중 하나는 내가 가진 방송 경험과 지식들을 남을 돕는 수단으로 쓰면서 살겠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나 역시 삶의 대부분을 나와 내 식구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삶에 만족한다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도우며 살아야겠다”. 지금 생각해도 꽤 의미 있는 생각이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한다.

두 번째 결심은 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겠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짧은 관광이 아니었다. 하나의 나라에서 1년 이상 지내며 그 나라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문화를 피부로 느끼고 싶었다. 그런 경험들이 먼 훗날 생산적인 활동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다행히 내게는 여행에 투자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여행할 정도의 경제력은 있었기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고 목적지를 정해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방송 제작 관련 경험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나는 방송 제작과 연계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오스에서 NIPA 자문관으로 활동하였던 선배로부터 NIPA 자문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듣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쳤다. 뛰는 심장을 달래느라 잠을 잘 수 없었다. 내가 결심한 두 가지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



〈칭기스칸 스텐레스 상〉 울란바타르 근교 내부엔 박물관이 있음

는 방법이 바로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며, 그곳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돕는 것!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바빴지만 서두르지는 않았다. 꿈을 이루기 위한 차근차근 NIPA 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했고, NIPA와 KOICA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드나들며 내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지 않았다. 해외 생활은 체력이 받쳐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몇 차례의 여행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모든 주변 정리를 마치고 NIPA 퇴직 전문가 모집에 응모하였다.

- 1)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 몽골 내 생방송 해설
- 2) ETV 부조정실 "All in One Rhythm"연출작업 중
- 3) ETV 생방송 중계차
- 4) ETV 체육대회 최고령 축구선수로 출전..



그러나 결과는 보기 좋게 탈락이었다. 하긴 그동안 살아오며 어디 그리 쉬운 일이 있었든가? 목표가 확고했기에 실망할 시간도 없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더욱 더 철저한 재수(?) 생활에 돌입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금 도전한 NIPA 고시. 재수 좋게 재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서류, 면접, 신체검사까지 모든 관문을 거쳐 고대하던 최종 합격! 마침내 NIPA 자문관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도 NIPA 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자 확인 버튼을 누르던 순간 느껴지던 떨림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그렇게 원했던 특별한 땅,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자문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곳이 내게 준 소중한 것들

울란바타르에서의 시간은 내게도 의미 있는 보람과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 그간 ‘울란바타르 ETV’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그 첫 번째였다. 특히 내가 기획한 생방송 프로그램 <All in one rhythm>이 같은 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일은 이곳에서의 성과 중 가장 보람된 것이 되었다.

또한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식 생방송의 해설자가 되어 몽골의 시청자들을 만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PD로 활동한 나였지만,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를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생방송이라니... 마지막 ‘컷’ 소리와 함께 스텝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는 했지만, 정작 나는 생방송 내내 얼이 나가 손



ETV 직원교육



1) MOU체결 장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몽골청소년연맹 2) 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과 본 자문단의 기념촬영

의 땀을 닦기 바빴다. 어쨌든 자국에서 치러진 국제 대회를 내가 해설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다. 물론 부족함이 많은 해설이었지만 그 자체로 내가 평생 기억할 기분 좋은 일이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개막식 생방송 이후 몇 차례 더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아무래도 난 카메라 앞보다 뒤가 더 편한 사람인가 보다.

또 하나의 보람은 2년 동안 지속했던 직원 교육! 방송국 경영진은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피교육자인 직원들은 무덤덤했다. 그들에게서 호응을 얻어내기까지 얼마나 맘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 단 한 명의 참석자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 놓았다. 가르치는 즐거움은 군자삼락(君子三樂) 중 하나라고 하지 않았던가.

교육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었다. 교육을 받으러 온 직원 대부분이 필기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멍뚱멍뚱 듣기만 하기에 왜 메모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다 외우면 된다고 하지 않는가. 다음 날 지난 시간 교육 내용을 물었더니 예상대로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직원들은 모두 필기를 하기 시작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무대인사 장면 몽골국립오페라극장

사실 몽골에 있으면서 현지인들의 지능 지수가 세계 평균보다는 꽤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암기와 언어 습득 능력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것 같다. 이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몽골이기에 어서 빨리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맘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길 빌어 본다.

최근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과 몽골청소년연맹(MYF)간의 MOU에 힘을 보탬 수 있었는데, 귀국이 얼마 남지 않고 보니 더 큰 의미로 느껴졌다. 내 요청으로 귀한 시간을 쪼개 몽골까지 방문해 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님의 노력이 한·몽 양국 간, 나아가 동북아 국가의 청소년 문제 연구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번 양 기관의 MOU 체결이 몽골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개인적으로 몽골에서 느낀 또 다른 기쁨은 공연이었다. <카르멘>, <나비부인>, <리골레토>, <아이다>, <라보엠>, <돈키호테>, <지젤>, <세릴리아의 이발사>, <백조의 호수> 등등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오페라와 발레를 접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보고 싶어도 비싼 관람료 때문에 망설였던 유명 오페라와 발레 공연을 모두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울란바타르 국립오페라극장 객석 맨 앞줄 한 가운데 오케스트라



울란바타르 외곽 판자집 벽에서 발견한 태극기와 색동저고리 그리고... 그 밑의 방노 흔적



양머리 정식 눈알과 혀 입천장이 맛있다고 내게 권해서 암담해 하며 먹었던 기억이...

박스 바로 앞에서 지휘자의 격렬한 지휘 모습과 연주자의 표정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오페라를 관람하는 기분이란... 더구나 단돈 1만 투그릭(한화 6천 원)에 그 호사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라. 내쉬는 숨에 속눈썹이 얼어붙는 그 춥고 긴 몽골의 겨울 동안 나는 오페라가 있어서 전혀 춥지 않았다.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찾아 준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프로그램’

평소 소심한 편이었고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 왔던 내게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프로그램>은 ‘새로운 나’를 찾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도 생겼다. 몽골에서 생활하는 2년 동안 얻은 노하우는 내게 자신감이 되었고,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현지인들도 꺼리는 우범 지역 ‘나란툴시장’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출장과 휴가를 통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몽골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눌한 몽골어로도 자신감 있게 대화하다 보니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할 때도 큰 불편이 없었다.



시골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천진한 어린이와 순하다 순한 토종개. 그러나 이 개는 늑대와 싸워 가족을 지킬 만큼 강인함을 갖고 있다

음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몽골의 식생활은 육식 위주이다. 특히 몽골 음식들은 한국인이 먹기에 너무 기름진 편이다. 나와 내 아내는 ‘감자호쇼르’, ‘김치테호쇼르’, ‘고



울란바타르 북쪽 칭길테 산 봄 풍경. 해발 1950m

릴테술' 등의 전통 몽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몽골 특유의 고기 누린내 나는 음식에 물린 외국인, 특히 한국인에게 꼭 권해 주고 싶은 메뉴는 '김치테호쇼르'이다. '김치테호쇼르'는 한국에 오래 살면서 김치를 좋아하게 된 몽골인들이 개발한 음식인데 김치가 들어 있는 튀김 만두(호쇼르)를 말한다. 고소하면서도 느끼한 호쇼르의 뒷맛을 잡아 주는 담백한 김치는 누구라도 어른 손바닥 크기의 호쇼르를 3장 이상 먹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귀국 후 내게는 두 가지 계획이 있다. 하나는 또 다른 나라로 나가 한 번 더 자문관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2년간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또 한 가지는 몽골과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접목시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양국의 접목된 전통 음악 공연을 세계화하는 일도 욕심이 난다.

몽골의 전통 음악 역시 우리나라의 그것 이상으로 깊은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그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싶은 것이다. 특히 몽골의 전통 악기인 마두금 연주와 무반주

독창으로 부르는 ‘흐미’(이름이 우스워서 처음엔 이름 때문에 이 노래의 깊이를 느끼는데 방해가 되기도 했다)는 몽골 전통 음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못 믿겠다면 <https://youtube/sLdrmuZBKBY>에 접속해 직접 확인하시길... 접속하면 흐미 창법으로 우리 민요 <아리랑>을 부르는(어쩌면 ‘연주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몽골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흐미를 검색해 몇 곡 들어보기를 권한다. 눈을 감고 듣다 보면 스스로 너른 몽골 초원 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된 듯한 기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2년간 몽골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몽골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 괜한 미소가 번진다.

-
- 1)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늘 아름다운 ‘칭길테산’에서
 - 2) 아르항가이 지역 나담 씨름대회
 - 3) 막 태어난 양 새끼를 안고 기뻐하는 양치기 아저씨
 - 4) ETV 아우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과 뭔가 말로 표현 못할 포스들.. 절대 몽골 깽두기 아저씨들 아님!



인생 100세 시대, 난 아직 현역이다!

2년간의 NIPA 자문관 활동을 마치는 즈음에 NIPA 자문관 활동이 내게 미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일까? 문득 2014년 여름, 몽골에서 6년이나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귀국하신 김종관 선생님이 떠오른다. 74세의 연세임에도 같이 산을 오를 때마다 늘 나보다 앞서 계셨고, 숲속 모든 것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그분을 뵈 때마다 나태해지려는 나를 반성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다. 지금도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니 귀국하면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여기서 즐겨 드시던 칭기스칸 보드카를 선물로 들고...



〈전통복장을 한 몽골 아가씨〉 - 몽골도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여서 의복이나 풍습 언어등 지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진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은퇴 후 보람 있는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NIPA 퇴직 전문가 프로그램〉을 알아볼 것을 진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나처럼 NIPA 자문관 활동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끝으로 제2의 인생, 나를 그 길을 안내해 준 NIPA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2년간 몽골에서의 자문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준 나의 영원한 동반자 오미향 님에게도 깊은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한다.



몽골
전대길

- 동국대학교 / 연극영화 / 학사
- 前 대림대학교 겸임교수
- 前 한국교육방송공사 근무
- WFK NIPA Advisors - 몽골 국영방송국(ETV) 파견